유괴될 뻔한 어린 주인 구한 입양견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반려견이 유괴당할 뻔한 어린 주인을 구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 45분경이다. 펜실베이니아 프랭클린 카운티에 사는 톰과 멜리사 램버트 부부는 에드가가 한밤 중에 갑자기 짖어대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당시 집 안에는 부부 외에 각각 3살, 6살, 8살 딸이 잠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몰래 집으로 들어오자 에드가가 으르렁거리며 짖어댄 것이다. 부부는 위험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침입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건의 진실은 다음날 침입자였던 토마스 드왈드(20)가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토마스는 지난달 25일 같은 지역에서 4살짜리 여자 아이를 유괴했으나 다음날 그가 출근한 사이에 그 아이는 도망쳤다. 이후 토마스는 다시 아이를 유괴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집을 물색하다 램버트 부부의 집을 범행장소로 골랐다.

토마스는 경찰 진술에서 "감시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 창문을 통해 이 집에 들어갔다." 면서 "당초 세 명의 아이 중 한 명을 납치하려 했으나 개가 너무 무서워 도망쳤다." 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드가는 일약 '영웅견' 으로 떠올랐다. 특히 에드가가 과거 길거리를 떠돌다 동물보호소를 전전하며 오랫동안 입양되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부부는 "몇달 전 보호소에서 에드가를 입양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 면서 "앞으로 평생 에드가에게 감사하며 살 것" 이라며 웃었다.

유괴 용의자인 토마스는 납치, 강도, 감금, 성추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점쟁이 말 들었다가 낭패당한 남성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박탈당했다.

중국 저장성 경찰은 지난달 26일 밤 저장성 리수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이던 스포츠카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검문했다.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의 면허 역시 만료되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 씨에게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증을 압수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포르쉐 신차를 구입한 주 씨는 4월 안에는 새 번호판을 달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 씨가 차 안에 새 번호판이 있지만, 점쟁이의 말에 따라 아직 달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현지언론에 "새 차를 사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4월 안에는 번호판을 달면 안 된다고 했다." 면서 "안전을 위해 점 찍어준 상서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면허는 잃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점쟁이 말대로 5월 중 새 번호판을 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씨는 임시면허가 만료됐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2세 노인, '배럴 캡슐' 타고 대서양 횡단 성공

지난해 연말 '원통' 모양의 주황색 캡슐에 몸을 싣고 홀로 대서양 횡단에 도전했던 노인이 4개월 여 만에 지난 3일 목적지인 카리브해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섬에 도착하며 무모한 도전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프랑스 노인 장 자크 사뱅(72)의 도전은 지난해 12월 26일 모로코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작은 섬 엘 이에로에서 시작됐다. 사뱅은 특수 제작된 주황색 '배럴 캡슐' 에 몸을 싣고 엔진이 아닌 해류와 바람에만 의존해 대서양 횡단에 나섰다.

이 캡슐은 길이 3m, 폭 2.1m로 수지로 코팅된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침대,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있지만 성인 남성이 겨우 일어설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을 뿐이다. 다만 안전한 횡단을 위해 위성 기술을 적용했으며 해양 연구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장비를 싣었다.

그가 무한도전에 나서며 챙긴 특별한 먹을 거리는 새해와 72번째 생일을 위해 준비한 '푸아그라' (거위의 간 요리)와 화이트와인 그리고 레드와인 한 병이다. 샤빈은 홀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총 4,500㎞를 항해했다.

샤빈은 공수부대 출신으로 민간 비행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해발 4,807m의 몽블랑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샤빈은 향후 좁은 장소에서 고립된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고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